“우리 강산에서 우리말로 공연…꿈만 같아요”

파독 간호사들로 구성된 극단 ‘빨간구두’는 파독 50년을 맞아 오는 27일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공연한다. 〈극단 ‘빨간 구두’ 제공〉

파독 간호사들 연극 ‘베를린에서 온 편지’ 서울 공연
광주일보에 ‘파독 50년’ 연재 박경란씨 극본·연출
광주 이묵순씨 등 12명 출연…자전적 이야기 연기
하나금융·‘함께하는 사랑밭’·연극인복지재단 초청

1970년 여고를 갓 졸업한 그녀는 주사기 한번 만져보지 않았지만 ‘파독 간호사’ 광고를 보고 무조건 지원서를 냈다. 모델이 꿈이었던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미니스커트를 입고 충장로 거리를 활보했다.

첫 직장이었던 베를린 노이쾰른 종합병원 생활은 혹독했다. 청소와 환자들 대 소변 처리를 하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세월이 이어졌다. 독일 남자와 결혼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 광주를 향했다. 아버지의 잔소리와 9남매의 얼굴이 항상 그리웠다. 올해 예순 여섯이 된 파독 간호사 이묵순씨의 삶이다.

그녀가 연극 무대에 선다. 오는 27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연극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다.

올해는 파독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외화 획득을 위해 1966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파독 간호사는 1만여명이 넘는다. 그녀들이 8000여 명의 파독 광부와 함께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가난한 나라와 가족을 위해 급여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보냈던 그들은 이역만리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왔다.

파독 간호사들을 구성된 극단 ‘빨간구두’(단장 김금선)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타향살이 애환과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네 차례 공연,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작품은 광주일보에 ‘파독 50년-호남 출신 간호사 인생 스토리’를 연재(격주 목요일) 중인 박경란씨가 희곡을 썼고 직접 연출도 맡았다.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는 수많은 파독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스토리를 짰다. 공연에는 시리즈에 소개됐던 이묵순씨와 전북 옥구 출신 김금선씨를 비롯해 12명이 출연한다.

연극은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된 주인공 ‘현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많은 ‘현자들’의 이야기가 다큐 형식으로 펼쳐진다.

이번 한국 방문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성사됐다. 국제구호 NGO ‘함께하는 사랑밭’,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주관해 극단을 단원을 포함 30여명을 초청했고 외교부와 롯데호텔, 재외동포재단,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 후원했다. 지난 23일 한국을 방문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7박 8일간 머물게 된다.

24일 아르코 극장에서 열린 리허설 현장에는 연희단 거리패의 이윤택 연출가가 자문 연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고국에서 공연 하는 것에 대해 모두 감격해 하셔요.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에서 공연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크죠. 고국을 떠난 지 50년만에 돌아와 독일어가 아닌, 한국말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한다는데 다들 뭉클해 하십니다. 우리 강산에서, 우리 언어로 연극을 올리는 게 꿈만같다고들 하셔요.”

박경란씨는 “이윤택 연출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들 뭉클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공연 후에는 파독의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함께하는 사랑밭(www.with-go.or.kr). 문의 02-2612-44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에 딴스홀을 許하라”

문화가 있는 날

‘1930 양림쌀롱’ ‘집콘’ 등
내일 광주·전남 행사 다채

4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첫 선을 보인 ‘1930 양림쌀롱’은 4월 행사를 알차게 준비했다. ‘1930 양림 쌀롱’은 광주의 근대를 양림동 전역을 무대 삼아 펼치는 문화 행사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과 DJing그룹 b+가 함께하는 댄스파티 ‘양림에 딴스홀을 許하라’, 30년대 컨셉으로 만나는 양림동 대표 프리마켓 ‘열정의 백미’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인기 푸드트럭 초청행사도 열린다.

또 시인 나희덕 포엠 콘서트 ‘1930 모더니즘 시와 감각의 변화’와 버스킹 밴드 및 주민아티스트가 참여한 ‘쌀롱 콘서트’가 마을 곳곳에서 펼쳐진다. 방문객들은 근대 의상, 소품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양림동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양림 쌀롱 텀블러’를 구매하면 제휴 카페의 커피와 음료를 최대 3잔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1인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형다방, 모단걸테이블, 호랑가시미술관 등 6개 커피숍이 참여했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린다. 문의 070-4239-5040.

광주문화재단은 낮 12시 20분에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야외광장에서 런치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런치콘서트는 음악그룹 ‘올댓뮤직’를 초청해 드라마 추노 삽입곡 ‘비익련리’, 영화 귀향 OST ‘가시리’, 색소폰 연주가 케니 지의 ‘Loving You’ 등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플루트·색소폰 최의묵, 피아노 김진수·노 을, 첼로 임효영, 해금 김현경, 베이스 김선별, 드럼 이승현 씨가 함께 한다.

국윤미술관은 이달부터 7월까지(5월 제외) ‘문화가 있는 날’에 ‘미술관藝 文得’(미술관예 문득) 프로그램을 오후 2~5시 진행한다. 현재 열리고 있는 소장품전 ‘생명의 순환’ 감상을 시작으로 미술관 설립자 국중효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마티에르 기법을 설명한다. 미술관이 자리잡은 홍림교 일대 풍경을 스케치한 후 크레파스, 사포 등을 활용해 마티에르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오후 2~3시, 6~7시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시각이랑 문해랑’ 해설 비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062-232-7335.

의재미술관은 오후 7시 ‘우리그림 우리가락 전통에 취하다’ 음악회를 연다. 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 김오연, 강은영, 정회완씨가 출연해 흥겨운 우리 음악과 함께 진도북춤, 살풀이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 느낀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문의 062-222-3040.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는 오후 6시30분부터 영화 ‘동감’(15세 관람가)을 상영한다. 문의 062-222-5562.

국립나주박물관은 오후6시30분 이벤트홀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한지 인형극 ‘호랑이님이 나가신다’(극단 ‘까치동’)를 연다.또 오후 4시30분부터 5시까지 박해훈 학예연구실장에게 특별전 ‘선비, 금강산을 가다’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문의 061-330-7824.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오후 5시~밤9시)에서는 3000원 할인된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그밖에 1주년을 맞은 ‘집콘’(집들이 콘서트)은 ‘나를 만든 문화, 내가 만드는 문화’를 주제로 첫 게스트 가수 해이를 다시 만난다. 조규찬이 특별 출연할 예정으로 오후 7시부터 네이버로 생중계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3월 열린 ‘1930 양림쌀롱’ 행사 모습.

소림 서용석 명인 추모공연

남도소리 상설무대 …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곡성 출신 고(故) 소림 서용석 선생을 기리는 음악회가 광주문예회관 남도소리상설 무대로 열린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박초월, 김광식, 정철호, 한주환, 서공철, 방태진 등 각 분야 명인들에게 판소리, 대풍류, 아쟁, 대금, 가야금, 태평소 등을 사사한 소림 선생은 모든 악기에 조예가 깊은 명실상부한 명인이었다.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을 역임한 그는 제1회 전주 대사습대회 장원, 제1회 KBS 국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추모 씻김굿은 ‘초가망석’, ‘쳐올리기’, ‘지전춤’, ‘살풀이춤’, ‘고풀이’, ‘길닦음’ 등으로 구성된다. 아들이자 제자인 영호(아쟁)·영훈(피리)·영민(해금)씨가 박미옥·강은영·김해진씨 등과 함께 출연한다.

2부에서는 서용석류 아쟁·대금·해금산조와 태평소 시나위 ‘메나리를 위한 환상곡’을 들려준다. 또 서용석 명인이 작사한 신뱃노래, 흥타령 등 남도 민요를 채보영, 이은하, 이영해, 천희심씨가 부른다.

문의 062-613-8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굿모닝타운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카페, 미용실, 병원 적합

- 전용 289㎡ (87평) 2/3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 (대출 5억) 실 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대출 20억) 실 투자 6억5천만원

무인텔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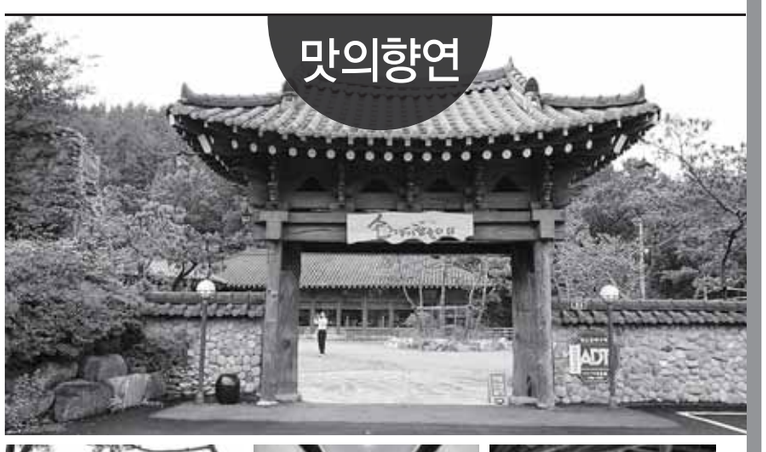
화순 도곡 온천관광 단지내
최근 올리모델링, 성업중

- 객실 28개 및 내 외부 올 리모델링
- 매 23억 (대출 14억5천) 실 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